

원유 선물시세 6개월만에 25달러 돌파

3월18일 국제유가는 지난주 말 석유수출국기구(OPEC)가 2/4분기에도 산유량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상승세를 기록, 원유 선물가격이 6개월만에 배럴당 25달러 선을 돌파했다.

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(WTI)는 장중 한때 25.20달러까지 올라 2001년 9월2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결국 지난주 말에 비해 배럴당 60센트 오른 25.11달러에 장을 마쳤다.

또 런던의 국제석유거래소(IPE)에서 4월물 북해산 Brent유도 배럴당 52센트 오른 25.07달러를 기록, 25달러 선을 넘어섰다.

OPEC는 지난주 말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2/4분기 원유 생산쿼터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결정했으며, 6월26일 특별회의를 다시 개최해 향후 생산정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.

원유 생산쿼터 유지에 대한 OPEC 회원국들의 찬성률은 85%에 달했는데, OPEC는 20년만에 찾아온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대응해 석유시장 안정을 최우선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.

<Chemical Daily News 2002/ 03/ 20>